

불조심 어린이

—서울·부산

火災로 인한 財產 및 人命의 被害를豫防하는데 어린이 스스로參與할 수 있는 意識을 鼓吹하고 訓練을 쌓아서豫防意識을 習得시키며豫防消防을 强化하는데 目的을 두어 第一次年度에는 서울, 釜山, 大邱의 3個都市에 1個學校를 選定, 該當學校 4,5學年生을 對象으로 「불조심 어린이團」을組織하였다.

서울地域은 서울市消防本部와 本協會가共同主管이 되어 서울시 教育委員會의 協助를 얻어 서울 南大門國民學校를 選定,組織完了함에 따라 지난 4月26日 午後 1時30分에 南大門國民學校 校庭에서 全國에서는 첫번째로 結團式을 가진 바 있다.

이 結團式에서 吳琳根理事長은 致辭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維新總和의 基盤위에 잘살기 위해서 온갖努力를 다하여建設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火災가 發生하면 國家의으로 커다란 損失」이라고前提하고 「平素에 教育과 訓練을 쌓아 불에 대한認識을 높히어 불조심에서 타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가 되어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内務部 民防衛本部 崔昌柱

消防局長은 激勵辭를 통해 「여러분의 뜻과 마음이 전 국민학교에 메아리쳐, 모든 어린이가 이에 참여하여 무서운 화재를 예방하는데 앞장 서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申集浩 서울市教育委副教育監은 激勵辭를 통해 「불조심 어린이 단원」으로서의 그使命을 다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는 財務·內務關係人



士들외에 損害保險會社 및 消防關係人士多數가 參席, 이날의 式典을 빛내 주었다.

이날 「불조심 어린이 단원」들은 明知高等學校 樂隊演奏에 맞추어 「불조심 노래」를 제창한 후 分列式을 가졌는데 이 分列式에서 불조심 어린이 단원들은 消防車 3台와 高架사다리車에搭乘하여 分列하므로써 團員으로서의 氣概를 誇示하여 參席者들은 흥奮한 마음으로

「불조심 어린이團」의 發展을 祝福하기도 하였다.

한편 釜山地域은 釜山市消防本部와 本協會가共同主管, 지난 5月 26일 午後 3時 釜山 南一國民學校 校庭에서 두번째로 結團式을 가졌다.

이 釜山市消防本部 樂隊의 演奏로始作된 이날 결단식에서 吳理事長은 致辭를 통해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火災發生의 頻度가增加되어 그 規模도 大型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불조심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조심 어린이團」을組織한 만큼 어린이도 불조심에 앞장서 災害없는 밝은 社會를 이루는데 最善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釜山市長을代理한 姜判寧消防本部長은 항도 釜山에서의 「불조심 어린이團」結團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어린이가 앞장서서 災害없는 밝은 거리, 밝은 都市를 만들어 줄것」을 촉구하였으며, 釜山市教育委員會 教育監을代理한 丁正鳳 초등교육과장은 「釜山市內 전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式典에는 釜山市 어머니 불조심會 會長을 위시한 많은消

이 단 결단

· 대구 3個都市 —

防關係者外에 元受社支店長, 管內學校長 등이 參席하였다.

특히 이날 式典에는 南一國民學校의 자랑일뿐 아니라 釜山市의 자랑인 南一國民學校生으로構成된 杖鼓樂隊의 춤을 겸한 노래는 이날의 式典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었으며 參席者들에게 큰 感銘을 안겨 주었다.

大邱地域은 大邱市와 本協會가 共同主管, 지난 6月19日 午後 2時 大邱中央國民學校 校庭에서 세번째로 結團式을 가졌다.

전날 까지만 해도 「오락가락 하던 비까지 멈추어 「불조심 어린이 団」의 將來를 밝게 비춰준 이날 結團式에서 吳理事長은 「화재를 예방하는데는 국가 行政만이 또한 어른만이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하고 전어린이가 참여해야 할것」이라 말하고 「불에대한 경각심을 해이시키지 말고, 교육을 통해 훈련하고 실천하여 불조심에서 선봉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李順奎교장은 訓示를 통해 「어린이단원은 어린이 스스로 참여 의식을 높히고 올바른 화재예방 훈련을 쌓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고 李相浩 대구시

부시장은 激勵辭를 통해 대구시는 불이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하였으며 裴舜岩 大邱市教育廳 教育長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으로 줄이는데 앞장서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式典에는 많은 關係者外에 大邱市內 全國民學校 어린이 代表들이 참석, 이들의 결단식 광경을



부려운 눈으로 바라 보았으며 자기학교에서도 「불조심 어린이 단」을 결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날 大邱結團式에서는 처음으로 街頭行進을 하여 이채를 띠었는데 大邱藝術高等學校의 고적대를 선두로 大邱市의 가장 번화가인 중앙동을 行進하므로서 많은市民의 길채를 받았을 뿐 아니라 火災豫防思想을 고취시켜 주

는데 커다란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이밖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光州, 全州, 大田, 仁川 등의 큰 都市에 이를 계속 組織시켜 나갈 방침인데 「불조심 어린이 단」에 가입되는 어린이에게는 모양 좋은 빨간 모자와 「배지」「스카프」 학용품등을 주며 불조심 활동에 다른 사람보다 우수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예정이다.

한편 本協會는 이미 結團을 본 「불조심 어린이 단」 교육계획을 세워 1차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서울의 경우는 지난 6月11日, 釜山의 경우는 지난 6月24日 午後2時부터 각각 약 2時間에 걸쳐 불의 무서움을 깨우쳐 주고 불조심을 生活화시키는 교육으로 재몽영화를 상영하고 실습을 시키는 등 深度 깊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